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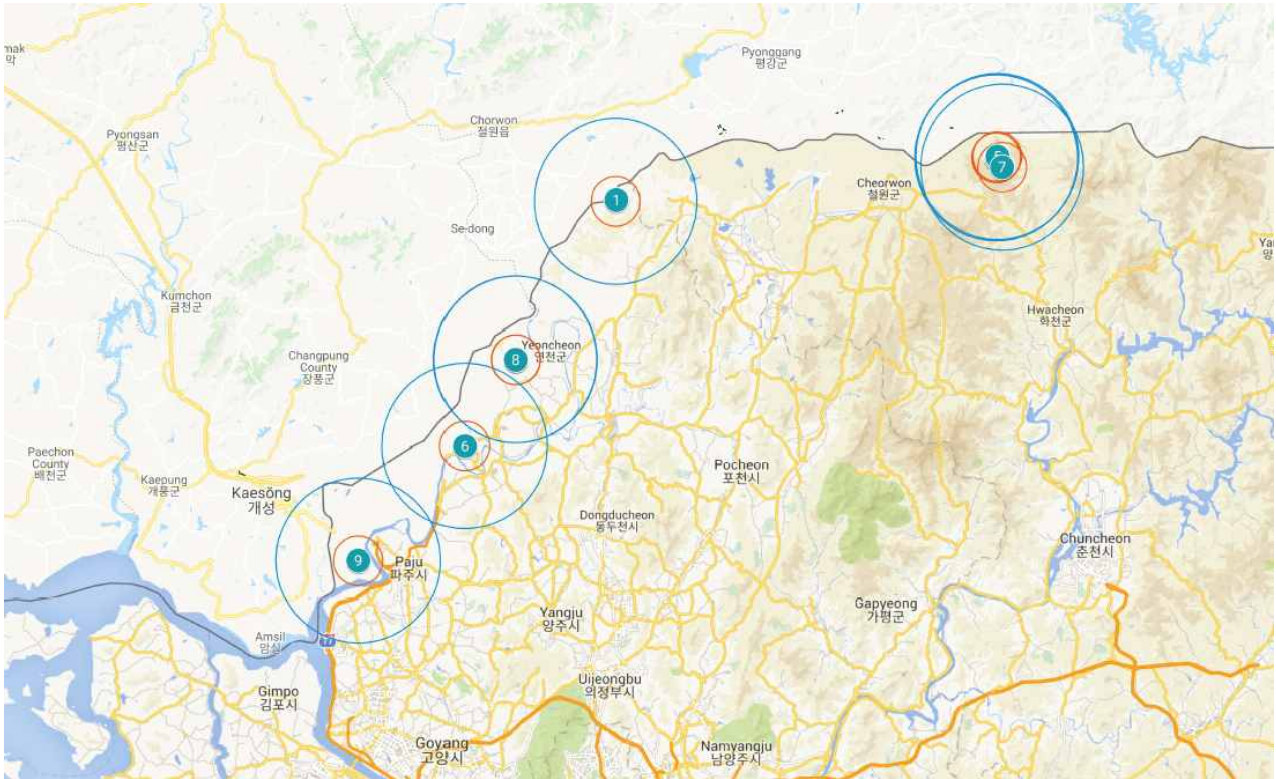
2019년 10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박찬용(044-201-7491), 사무관 홍경표(7500) / 제공일: 10월 17일(2매)
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김상경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15)

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

◇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의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

-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장윤석)은 10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.
 - 10월 16일 오전 11시 경 민통선 내에서 농민이 폐사체를 발견하여 파주시로 신고했으며, 파주시는 현장 확인하여 과학원으로 신고 후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이송했다.
 - ※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, 주변 방역작업 실시
 - 파주시는 올해 1월부터 총 12개체의 폐사체 신고가 있었으며, 민통선 내에서 신고된 것은 4개체로 이중 이번에 신고된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되었다.
 -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“철원과 연천지역 외에서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”라며, “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(전기울타리 등)을 조속히 설치하고 장단면으로 들어가는 2개의 교량과 연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소독·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군과 지자체에 요청했다”라고 말했다.
- 붙임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지도 및 현장사진. 끝.



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지도(파주 9번)



폐사체 발견 사진



폐사체 시료채취



폐사체 매몰



매몰현장 소독